

지역사회 홍역 유행 Q&A

홍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납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홍역에 감염되었을 경우,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됩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홍역 백신(MMR: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2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진1. 홍역으로 인한 발진
(좌: 영아의 전형적 발진, 우: 청소년의 비정형적 발진)
[출처] 질병관리본부

MMR 2차까지 접종을 했는데 감염이 되나요?

2회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돌파 감염(Breakthrough Infection)**이라고 합니다. 돌파 감염으로 감염되어도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 권장시기*에 맞춰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MMR 백신 접종 권장시기: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각각 1회 접종

현재 3세인 우리 아이는 MMR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2차 접종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역에 노출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역이 유행할 때는 만 4세 이전이라도 2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1차 접종과 4주 이상 간격 필요). 홍역에 노출된 지 72시간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으면 홍역 발생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홍역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요?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전염력이 있어 호흡기 격리(**마스크 착용**)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홍역 **의심 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회사 등 단체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후 4일까지 격리**되어야 하며, 홍역환자의 **접촉자**는 등교 및 출근 중지를 권장합니다.

MMR 접종 후 얼마동안 임신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MMR 백신은 모두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생백신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가임기 여성은 MMR 접종 후 **4주간**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홍역에 노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MMR 접종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1세 미만의 영아, 임신부, 면역결핍 환자 등은 노출된 지 6일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으면 홍역을 예방하거나 증상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홍역 유행지역으로 여행 또는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성인입니다. 이전 MMR 접종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홍역에 노출 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출국 전 MMR 2회 접종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홍역 유행 국가들에 대한 정보(Travelers' Health)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MR 접종력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본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록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건에 한하여 조회 가능하며, 홍역의 경우 1985년 이후 출생자는 대부분 접종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역 증상이 의심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발생 한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여 안내에 따릅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